

2024

Cheongju Archive Festival



청주사진아카이브도서관
CHEONGJU PHOTOGRAPH LIBRARY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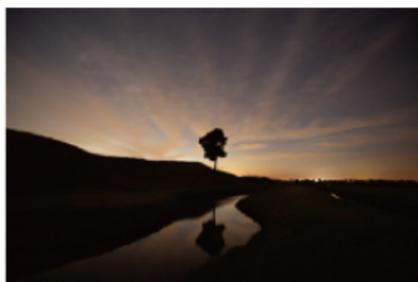
2024년 9월 10일 — 9월 15일

청주시한국공예관
2-2, 2-4 갤러리



청주미래유산아카이브

가경
왕민철



도시기억아카이브

산성
토성
읍성



김유찬 김인숙 김정선 김해연 소상호
손혜린 신명현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아름다운
무심천

김종출

2024
Cheongju
Archive
Festival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

2024년 9월 10일 — 9월 15일
청주시한국공예관

콘텐츠 생성의 근간으로 자료 정리, 연구, 보관하는 행위는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한다. 이런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적 역할, 즉 아카이브는 도서관, 박물관 등 자료를 보관하는 다른 말들에 비해 다소 익숙하지 않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아카이빙”, “아키비스트” 등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단어의 정의에 대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려는 현상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그럼에도 사회에 필요한 긍정적 인식의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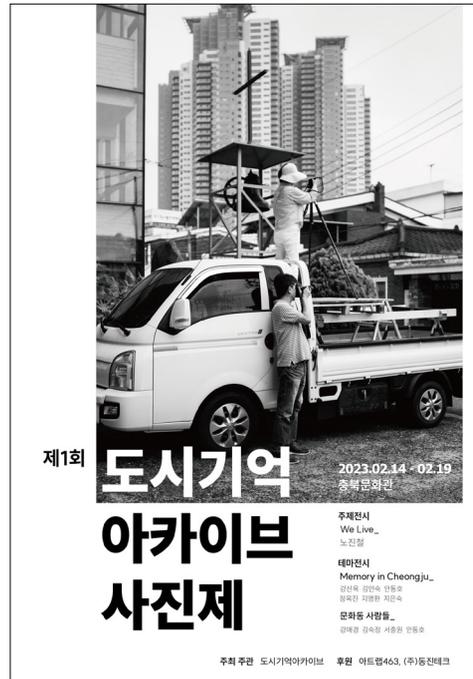
사회에서 아카이브를 집중적으로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바로 사진가들이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아카이브 해왔는데 특히 20세기 전쟁, 산업, 환경 등 거대한 사회를 기록하기도 했고, 우리가 태어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 앨범을 만드는 등 대중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대사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Nixcolas Nixon의 “four sisters”, 국내 사진책 중 가장 많이 팔린 책 중 하나인 전몽각의 “윤미네 집” 등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카이빙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콘텐츠로 활약하고 있다. 아키비스트 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기록 의식을 보여주고, 집중력 있는 작업을 통해 세상에 거대하게 드러나는 창작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사진가를 향한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의 모습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촬영하는 작가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런 사진가들의 태도를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2020년 봉명동 주공아파트 아카이브를 시작으로 매년 지역의 긴급한 현안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이번 축제를 통해 지난 몇 년의 프로젝트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아키비스트로서 사진가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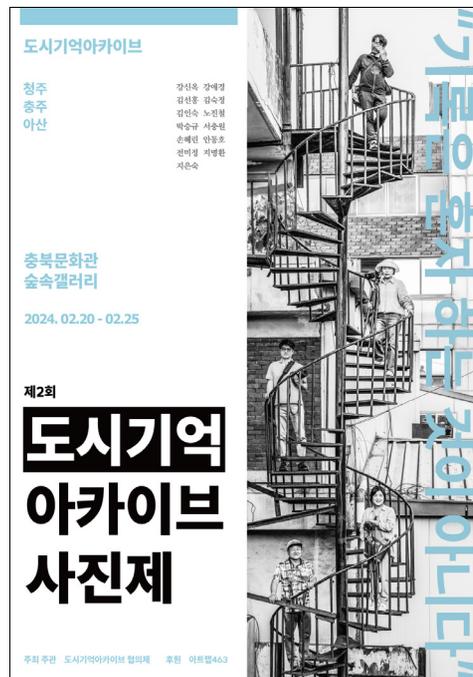
제1회
도시기억
아카이브
사진제

2023년 2월
충북문화관



제2회
도시기억
아카이브
사진제

2024년 2월
충북문화관



archive book



봉명주공아파트



새싹놀이터



We Live



문화동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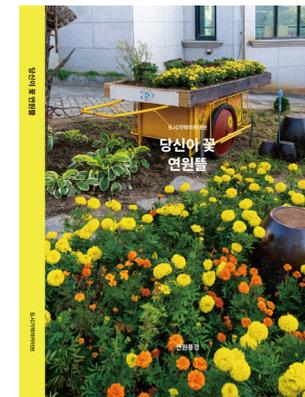
우암산 사람들



청주향교



지금 남주동



당신은 꽃 연원들



청수장 아카이브

장소를 기억하는 방식

장소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생성될까?

공간에 대한 기억은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것은 영원히 기억되기 마련이다.

꼭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장소는 우리 삶이 닳기는 틀로 세계관 형성의 기본이다.

Program

청주미래유산아카이브

가경

왕민철

도시기억아카이브

산성
토성
읍성

김유찬 김인숙 김정선 김혜연 소상호
손혜린 신명현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아름다운
무심천

김종철

가경, 假景

왕민철

청주시한국공예관
갤러리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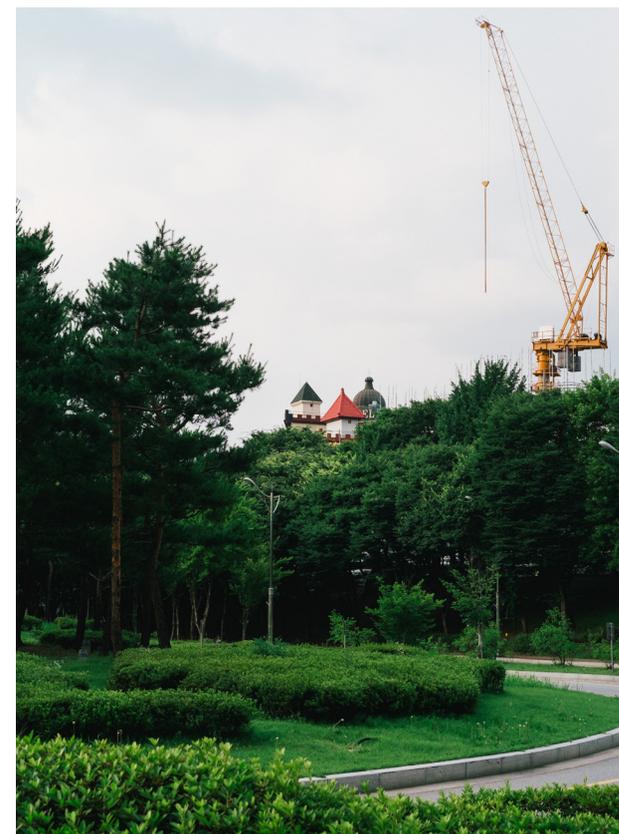
2024년 9월 10일 - 15일

기억은, 우리가 훗날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주위에 있던 사물과 공간에 조용히 달라붙는다.

그리고 허물어진 거미집이 주인이 없어도 그 자리를 끈질기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기억은 주체자가 거기에 있든 없든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산성 토성 읍성

김유찬 김인숙
김정선 김해연
소상호 손혜린
신명현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청주시한국공예관
갤러리 2-2

2024년 9월 10일 - 15일

청주를 대표할 만한 장소를 찾아 아카이빙하고자 했다.
시민 기록가들의 기획으로 세 개의 성이 발견되었고,
서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상당산성, 정북동토성, 청주읍성을 기록했다.
성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목적 대신 새로운 문화로 덮여있었고,
현재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상당산성



정북동토성



성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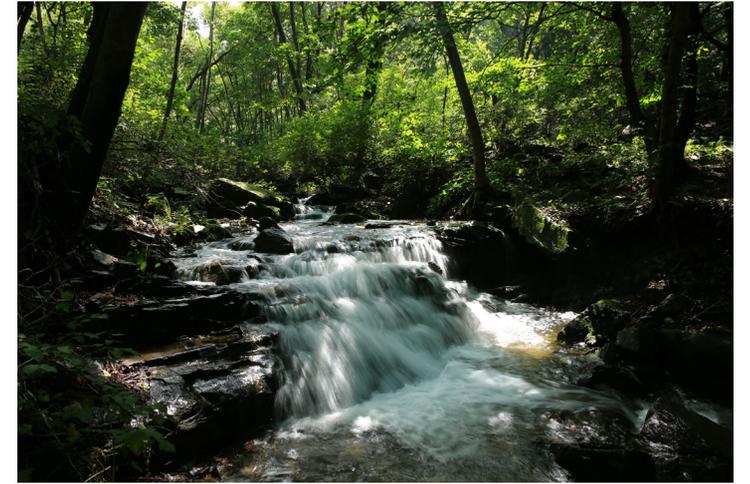
아름다운 무심천

김종출

청주시한국공예관
갤러리 2-2

2024년 9월 10일 - 15일

청주의 젓줄 무심천은 가덕면 내암리 벽계수 웅달샘과 낭성면 추정리 산정말 샘에서 발원하여 까치내까지 80여리를 흐르는 하천으로서 “우암산”과 함께 “무심천”은 모든 학교의 교가 가사에 들어가는 청주의 상징물이다.



사진과 책

산성 토성 음성
아름다운 무심천
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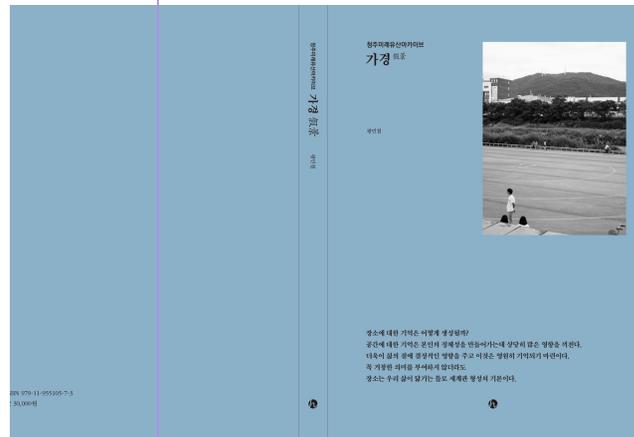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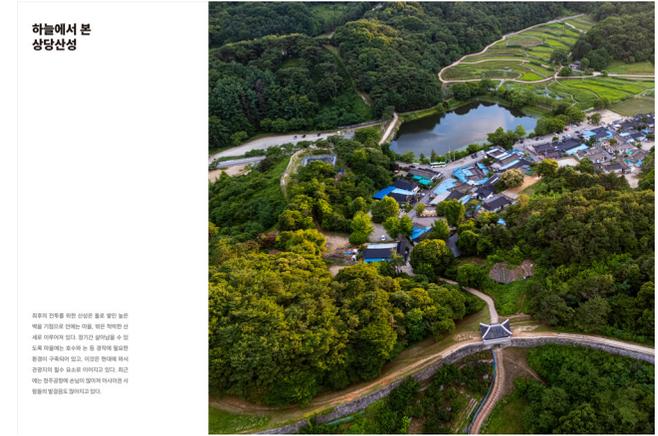


사진 전시

<가경>

왕민철

청주시한국공예관 2-4

<산성 토성 음성>

김유찬 김인숙 김정선 김해연 소상호
손혜린 신명현 안동호 이경훈 이선호

<아름다운 무심천>

김종출

청주시한국공예관 2-4



2024

Cheongju Archive Festival

기획 이재복

주최 **청주시**
CHEONGJU
CITY 

주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운영 우암-컬렉티브 동네기록관